

교회소식

2005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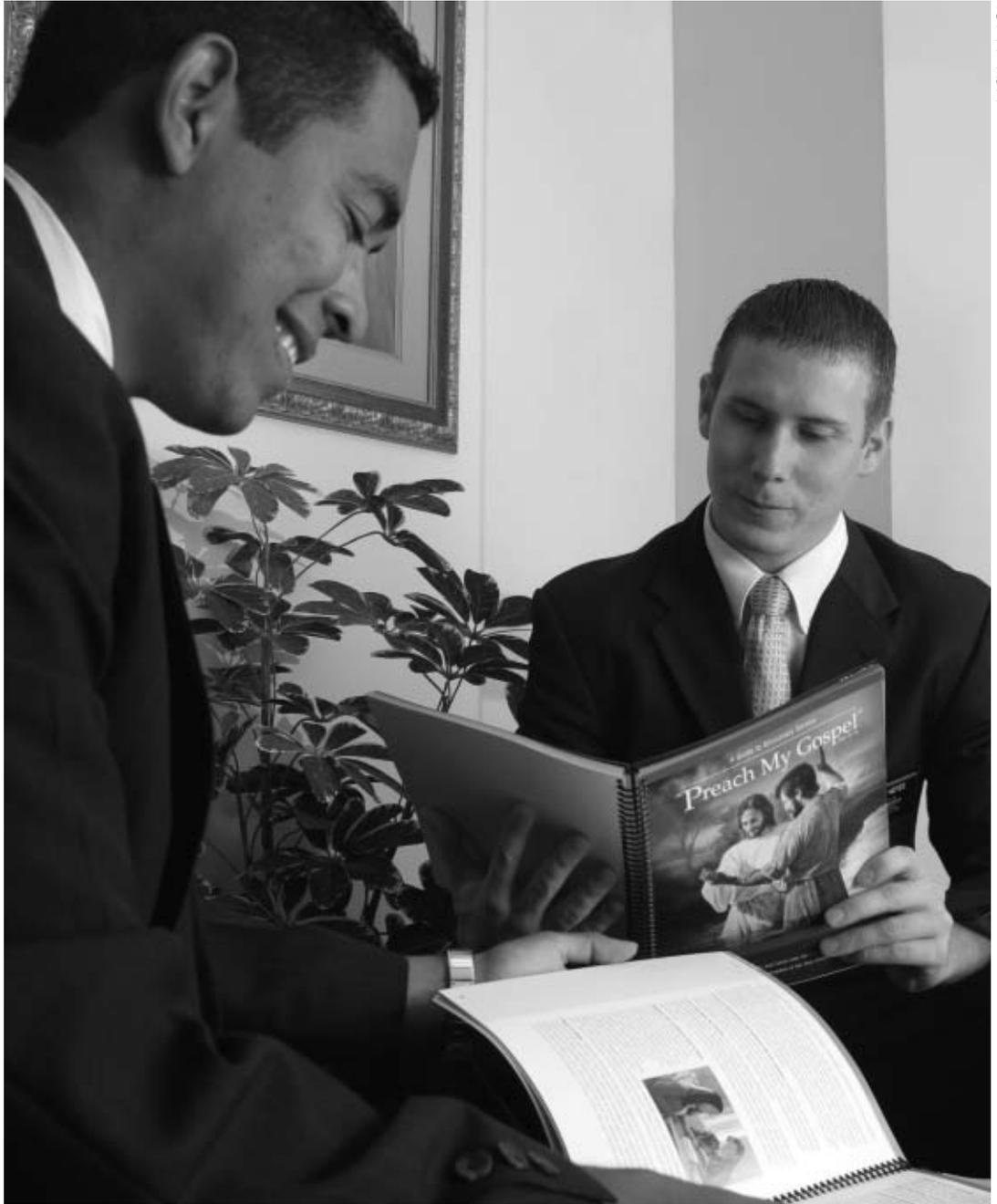


사진 촬영: 아담 시 올슨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공과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때, 선교사들은 구도자들에게 알맞은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전세계의 선교부에서 새로이 시작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프로그램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교회 지도자들이 200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선교 사업을 위한 표준이라는 기”를 드높이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후로, 더 잘 준비되고 영으로 가르칠 능력이 있는 젊은이들을 더 많이 내보내는 일이 크게 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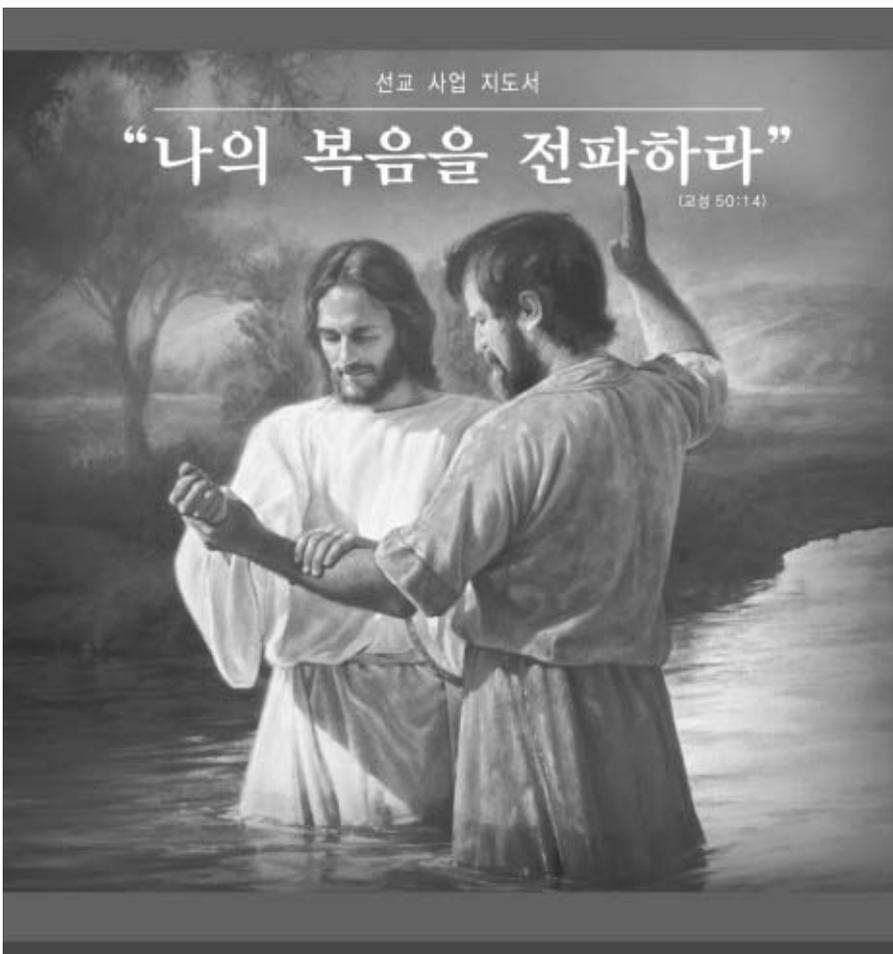
이런 노력의 결과로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계획하

고, 알하는 방법에서 선교사 프로그램에 중대한 변화를 도입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교재가 만들어져 최근에 출판되었다.

교재의 소개 메시지에서 대관장단은 이렇게 적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여러분이 더 잘 준비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선교사 ... 가 되도록 돕기 위해 마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고성 50:14)



“회개하라, 나의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아 정결케 되어”(나미야서 27:20)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교재는 선교사 지도서, 과거의 토론, 새로운 회원을 위한 복음 토론, 선교사 복음 공부 프로그램을 대체한다.

련되었습니다. ...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사업을 돕겠다는 각오를 한층 더 새롭게 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계획을 채택함으로써 영을 느끼고 그 영이 선교사들과 구도자들 사이의 대화를 이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든 비 힝클리 대판장은 2004년 10월에 있었던 위성 방송을 통해 전세계 선교부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말했다.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은 보다 큰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많은 공부를 요구할 것입

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2004년 신입 선교부장 세미나에서 선교부장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중요한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면 옳은 진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의 14개 선교부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운용된 이 프로그램은 교회의 338개 선교부에서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새로운 선교사 토론과 토론을 가르치는 방법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프

그램의 핵심 부분은 이미 전세계 전역의 모든 선교부에 배부되었다.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교재는 2004년 말까지,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언어로 된 교재는 2005년 전반기 동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선교부장 세미나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변화가 필요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처럼 힘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교사들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선교 사업에 대한 표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단계였으나 “표준을 높이는 일” 이외에도 “우리는 선교사들이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찾고,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개종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도와 주도록 준비함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다줄 자료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벨라드 장로는 말했다.

새로운 지도서

선교사 프로그램의 가장 뜻 깊은 변화 가운데는 선교사 토론과 새로운 회원을 위한 토론 및 선교사를 위한 계획 자료에 대한 수정이 있다.

예전의 선교사 지도서, 표준 토론, 새로운 회원을 위한 복음 토론, 선교사 복음 공부 프로그램을 모두 합쳐 670여쪽에 달했던 이 모든 자료들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불리는 약 230쪽의 단일 출판물로 대체되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선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칠 준비를 하며, 영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물문경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고,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가르칠 사

랍을 찾고, 토론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지키도록 돕고, 침례 및 확인에 대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스테이크 및 워드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 등과 같은 주제가 담겨 있다.

“이 교재는 선교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준비가 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며, 또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지도서입니다.”라고 벨라드 장로는 말했다.

가르침, 개종 및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이 프로그램은 가르침, 개종 및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것은 선교 사업의 모든 중요한 요소에서 교회 회원들과 선교사들의 노력을 통합시킨다.

“개종 과정에서 잘 가르쳐질 때 침례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말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핵심에는 새로운 선교사 토론이 있다. 선교사들은 구도자를 위한 여섯 개의 토론과 새로운 회원을 위한 여섯 개의 토론을 더 이상 암기하여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에 다섯 개의 기본 공과에 있는 교리와 원리를 공부하고 배우며, 각각의 구도자나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필요한 개별화된 공과를 만들어 전하게 된다. 각 공과는 교리와 성약 20편 37절에 있는 경전상의 침례 요건에 맞게 구도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교사들은 표준 내용을 더 이상 단순히 읽거나 낭독하지 않을 수 있다. “선교사들은 [교리를] 이해해야 하며, 그래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라고 선교사부의 집행 책임자인 켄턴 엘 쿡 장로는 말했다. 그것은 “나의 말을 전파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러한 연후에야 내가 원하면 나의 영광 나의

말 곧 인간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21)라는 경전상의 권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새로운 자료는 회원들에게도 보다 친숙하다. 교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친구 및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고 있을 때 선교사들과

더욱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다. 회원들은 복음을 나누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도록 선교사들을 집으로 초대할 때 더 편안한 느낌을 가져야 한다. 구도자를 찾고, 가르치고 또 우정 증진을 하고 새로운 개종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

영으로 가르침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공과들은 선교사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쌓아 두게 하여] 필요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분량대로 말해야 할 말을”(교리와 성약 84:85) 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이제 영으로 복음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2004년 10월 15일에 있었던 선교사 위성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70여 년 전에 제가 선교사였을 때, 우리에게는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매일 아침에 그 날 어떤 소재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는 밖으로 나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묵할 만하게, 관심을 가진 구도자를 찾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 해 뒤, 제가 십이사도들의 지시 아래 선교사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첫 번째 통합 계획이 도입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 계획은 암기가 주된 노력이 되는 하나의 절차로 변했습니다. 암기에서 나오는 판에 박힌 방식으로 공과를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주님의 영보다는 그들의 기억력에 보다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월 11일에 있었던 제1회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힝클리 대관장

은 선교사의 가르침에서 영의 인도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표준 선교사 공과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훌륭한 결과가 있어 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 결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방법은 많은 경우에 영과 개인적인 확신이 결여된 암기식 발표를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교리와 성약 46편 2절을 인용했다. “그러나 무엇이든 기록되어 있든지 간에 나의 교회의 장로들은 처음부터 또 이후 어느 때까지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집회를 사회화하도록 허락되었느니라.”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약속했다. “이 원리가 준수된다면 그들의 가르침에 새로운 힘이 실릴 것입니다. ... 선교사들은 암기한 공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의 속삭임을 받아 큰 확신을 갖고 말하십시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토론들은 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했던 대로 대본 없는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일부 전진하여 이제까지의 다년간 경험에 기초하여 개발된 보다 훌륭한 지원 자료를 선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는 일에서 선교사들과 와드 및 스테이크 사이에 보다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

계획

새로운 공과 외에도, 새로운 교재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교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측면은 목표 설정, 계획,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여러분이 목표, 목적을 세워 그것을 행하기 시작할 때는 영이 찾아와 인도해 줍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목적으로 과거 사용하던 한 쪽짜리 주례 계획표는 6주 계획표로 대체되었다. 이 수첩에는 계획 지침, 새로운 구도자를 찾기 위한 제안, 주간 목표, 예비 계획 및 메모를 위한 지면이 있는 일일 계획표가 들어 있다.

두세 시간 동안의 주례 계획 모임 이외에도 동반자와 함께 매일 저녁 30분 동안 다음 날을 계획하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매일 아침, 그 계획들을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게 된다. 지역 책자에 있는 정보와 연계하여 계획표는 선교사들이 동반자와 함께 시간을 계획하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선교사가 ...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의 영을 갖게 될 때 ... 구도자는 무엇인가를 느끼게 됩니다.”라고 벨라드 장로는 말했다. “그와 같은 권세로 선교사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만들어진 의도입니다. ... 세상의 어떤 지역에는 종교에 그다지 흥미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메시지를 그곳에 전하여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혀 없는 방법으로 선교사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

교회 성장에 따른 시설 확충을 위한 “훌륭한 도전”

패트리시아 에스 노우드, 교회 잡지

선교 사업은 “기이한 일”로 묘사되어 왔으며, 복음을 발견한 참으로 놀랄 만한 수의 새로운 회원들과 더불어 새로운, 또는 성장하는 스테이크 및 지방부를 위한 건

물 마련이라는 도전적인 과제가 수반된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교회 대관장으로서 공개 회견을 하던 날, 이제까지 성장을 거듭해 온 교회가 안게 되는 몇 가지 과제를



지난해 11월에 헌납된, 카리브 해 지역 최초의 종교 교육원 건물은 2004년 동안에 건축된 400개 이상의 교회 건물들 중의 하나이다.

언급했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하며 가장 훌륭한 도전은 바로 성장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대한 성장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배당과 기타 시설들의 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훌륭하고 놀라운 도전이 아니겠습니까!”(“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교회 대관장으로 성임됨”, 성도의 벗, 1995년 5월호, 교회 및 지역소식, 5쪽)

그와 같은 낙관적인 태도로 교회의 시설부는 새로운 집회소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11월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451개의 다양한 규모의 집회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 프로그램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처럼 많은 건물을 지은 단체를 알지 못합니다.”(“교회 현황”,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쪽) 대략적으로 매년 300개의 새로운 집회소가 전세계에서 건축되고 있으며, 150개의 기존 집회소가 증축되고 있다. 건축의 삼분의 이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는 오랜 기간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집회소 건축과 관련하여 검증된 과정들을 발전시켜 왔다. 힝클리 대관장은 “우리는 ... 그러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전에 지은 어떤 건물보다도 훌륭한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쪽)라고 말했다.

집회소를 짓기 전에 시설부는 와드나 지부를 위한 다른 고려 사항들, 즉 인근의 와드나 지부와외의 건물 공동 사용, 한 건물에 더 많은 와드나 지부를 수용하기 위한 모임 일정 조정, 또는 기존 집회소의 확장 등과 같은 사항들을 평가한다. 새로운 집회소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면, 다른 요청 사항과 이용 가능한



2000년에 헌납된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성전은 분주한 이 도시에서 각별하게 아름다운 건물로 서 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건물들은 아름답습니다. 이 건물들은 해당 지역의 미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들을 바탕으로 요청 사항을 정하고 우선 순위를 만든다. 일단 요청이 승인되면, 추진 계획에 이 요청을 덧붙여 검토를 위해 교회 지출 위원회로 보낸다. 그 계획이 승인되면,

집회소의 설계, 건축, 헌납이 차례로 이루어진다.

종종 교회는 건물을 건축할 때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며, 교회 프로그램을 지

원하고, 주변 지역 사회에 바람직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표준 계획안을 사용한다. 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건물들은 아름답습니다. 이 건물들은 해당 지역의 미관을 더해 주고 있으며, 또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 건물들은 실용성과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건물들이 비슷해 보인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험하고 시도해 본 모형에 따라 건물을 짓기 때문에 회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고 있습니다.”(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쪽)

많은 경우에 집회소 건축에서 가장 큰 과제는 건물 부지를 구입하는 일이다. 인구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대지가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값이 비싸다. 뉴욕 맨해튼 성전과 중국 홍콩 성전과 같은 몇몇 성전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 성전들은 교회가 소유한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지어졌다. 이런 지역에서는 다층 설계가 집회소 건축에 종종 사용된다.

과거에 회원들의 큰 과제는 건축 기금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는 일이었다. 이제 회원들은 건축을 위해 돈을 희생하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지만 시간을 내어 예배의 집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도우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곳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주인 의식과 애착심을 갖게 된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일부 사람들이 교회에 갖고 있었던 오해에서 비롯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건물이 발표되면 지역 사회의 반대가 일어나기도 한다. 교회는 가능한 대로 이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하늘의 도움을 자주 볼 수 있다.

교회의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주님을 위한 건물을 짓는 사업도 계속될 것인데, 이는 그 건물들에서 복음을 가르치

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삶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2003년 11월 연차 대회에서 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의 사업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줄 때, 이 사업에서 해가 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진실입니다. ... 우리의 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섭리로 그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장을 걸었던 국가들도 머지 않아 개방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교회 현황”,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6쪽) ■

청년 총회 중계 계획

청년 총회가 2005년 3월 26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의 주제는 “위대하고 기이한 일”이다.

총회는 현지 시각으로 26일 오후 6시에 방송될 예정이며, 재방송은 교회 위성 시스템으로 당일 오후 8시에 미국, 캐나다, 카리브 해 지역,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브라질, 우루과이 일부 지역, 그리고 남미의 기타 지역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교회의 다른 지역으로에 대한 재방송은 그 후의 다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총회는 다음의 언어로 방송된다.

한국어, 과라니어, 광둥어, 그리스어, 나바호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오티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만다린어, 몽고어, 몽족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스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아노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아이티어, 에스토니아어, 영어(또한 폐쇄 회로 자막 방송),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키리바

시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폰페이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이 모든 언어가 모든 지역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음성 실황 방송은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언어로 접할 수 있다. 변경 사항과 최신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www.lds.org/broadcast를 참조한다. 3월 28일에는 위에 열거된 대부분의 언어로 음성 실황 방송을 방송 기록 보관소에서 들을 수 있다.

DVD 녹음은 방송 후 몇 달 후에 배부할 계획으로, 위에 열거된 언어들 이외에 말라가시어, 스와힐리어, 알바니아어, 추우크어, 크로아티아어로도 배부될 예정이다.

방송 시간과 시청할 수 있는 언어는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최신의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지도자들에게 문의한다. ■

청소년 영적인 모임의 방송 계획

칠 십인 회장단의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가 2005년 3월 6일, 유타 주 프로보의 매리엇 센터에서 갖게 될 교회 교육 기구 영적인 모임 방송에서 교회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이 말씀은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생방송될 예정이다.

영적인 모임은 다른 언어로 통역되어 일주일 후인 3월 13일에 방송될 예정이다. 통역되는 언어는 다음과 같다. 광둥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마살어, 만다린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아르메니아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통가어, 핀란드어, 한국어, 헝가리어,

방송 시간에 대해서는 지역 지도자들에게 문의한다. ■

소식

교회 중앙 아메리카에 최초로 감독의 창고 개설

2004년 8월에 교회는 감독과 지부장들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일을 돕기 위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에 있는 시설들과 함께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최초로 감독의 창고들을 개설했다.

감독의 창고들은 콩, 옥수수 가루, 소맥 가루, 귀리, 식용유, 분유, 쌀, 소금, 설탕, 콩 단백질과 같은 기본 생필품을 갖추게 될 것이다. 창고들은 완전히 자원 봉사자들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 회장단의 요청에 따라 개설된 창고들은 이제는 생필품들을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복지 필요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도자들은 일반 공개 모임에서 복지 프로그램이 생활 방식이 아니라 생활을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감독이나 지부장이 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감독이나 지부장은 그런 회원들에게 그 보상으로 가능한 때에 봉사할 것을 요청한다.

초강력 태풍이 일본의 교회 회원들에게 영향을 주다

지난 해 태풍들이 일본에서 맹위를 떨쳤다. 일본어로 도마뱀을 의미하는 태풍 도카게는 올해로 열 번째 태풍이었다. 일반적으로 태풍의 시기에는 고작 세 개 정도의 폭풍이 상륙한다. 지난 번 강타한 폭풍 도카게는 1979년 이래 최악의 단일 폭풍이었다. 사망자는 78명에 이르렀으며,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전체적으로 170명 가량의 사람들이 2004년의 태풍 시기에 사망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도카게는 온 나라에 엄청난 파도와 수백 건의 진흙 사태를

일으키며 2004년 10월 20일 일본을 강타했다. 태풍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태평양으로 빠져 나간 후 열대성 폭풍으로 변해 세력이 약해지기 전에 일본의 주요 섬 세 곳을 덮쳤다.

일본의 많은 지역이 폭풍에 대비하여 미리 휴교와 휴업에 들어갔다. 일부 직장인들은 일찍 귀가했으며, 공립 학교는 휴교하였고, 지역 버스, 기차, 항공 교통은 중지되었다. 927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었으며, 265,000 가옥이 단전되었고, 거의 10,000명의 사람들이 집을 비워야 했다.

일본 후쿠치야마 지방부 도요오카 지부의 회원들은 태풍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태풍으로 인해 32명의 회원들의 집과 선교사 주택, 그리고 지부의 집회소도 물에 잠겼다. 주변 지역에서 온 회원들이 교회 회원들, 친구들과,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게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물에 잠겨 피해를 입은 도로를 지나 여러 시간을 여행했다.

일본 화재 및 재난 관리청에 따르면 40,000 가옥 이상이 도카게로 인해 물에 잠겼으며, 2,706 가옥 이상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파괴되었다. 사망자와 산사태로 파괴된 가옥도 많았는데, 이는 일본의 70 퍼센트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고, 많은 가옥들이 급격한 경사 아래 건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일요일에 도요오카 지부의 회원들은 성찬식을 위해 집회소 이층에 모였다. 요시히로 후루타니 지부장은 “참으로 우리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정상적이 못했던 그 한 시간의 모임 동안 각 회원들은 영적인 위안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날은 참석률이 높았으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참석이 많아졌다. ■

Church News 기사 제공



태풍 도카게가 지나간 뒤, 청소를 돕고 있는 일본 회원들이 입은 “도움의 손길” 조끼가 눈에 띈다.

가정의 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가정의 밤은 매형인 배덕수 대구 스테이크장께서 감리를 보시겠다고, 사회는 저 대명 와드 감독 이상교 형제가 보겠습니다. 지휘는 다섯 살 은채가 하겠고…” 2005년 1월 31일 월요일 저녁, 대구 스테이크장인 배덕수 형제와 그의 아내 이미득 자매의 집에서 이선득 자매, 이상교 형제 가족의 합동 가정의 밤이 열렸다.

가장 언니인 이미득 자매의 집에는 6명의 자녀가, 이선득 자매의 집에는 9명의 자녀가 있다. 거기에는 막내 동생인 이상교 형제의 집에는 3명의 자녀가 있는 관계로 넓은 거실이 좁게 느껴진다. 개회 찬송으로 어린이 찬송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같이 부르자’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말일성도들이 꿈꾸는 그런 가정의 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풍성한 말일성도 가족 구성의 처음 시작은 이미득 자매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1973년 봄 방학, 동생 이선득 자매와 동네 문구점에 갔다가 분위기가 색다른 외국인 두 명을 만나면서부터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키~”

“우리 교회에 한번 놀러 오세요.”

찾아간 교회는 수리도 하지 않은 어두 킴킴한 공장 부지에 의자만 덩그러니 몇 개 놓여 있는 서대구 지부였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게 이 두 자매를 맞아 줬다.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시키는 특별반에 속해 있어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던 학생들 마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교회를 그만 다니라고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미득 자매는 선교사와 열심히 복음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께 침례를 받게 된다면 교회에 잘 다니겠다고 처음으로 기도도 했다. 당시는 침례식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평일 저녁에 하던 때였다. 침례 약속을 해 놓았지만, 평일에는 매일 저녁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했던 터라 걱정도 많이 됐다. 침례를

약속한 날, 이 자매는 운동장 화단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일찍 나갈 수 있을까?’

그때였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시 교육청에서 손님이 오시는 관계로 오전 수업만 있겠습

니다.” 운동장으로 퍼지는 이 방송은 이미득 자매가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간증으로 자리잡았다.

“내가 지금까지 여섯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 교육청에서 손님 온다고 오전 수업만 하고 돌아온 아이는 없었어요”라며 이 자매는 함박 웃는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는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공장의 화재로 인해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 보여준 주변 회원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더욱 간증을 강화한 이미득 자매는 동생인 이선득 자매와 이상교 형제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을 키우며 생활 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던 터라 어린 동생들을 많이 돌봐주지 못했음에도 이렇게 모두 신앙 안에서 잘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 대견하고 그 때 돌봐 주셨던 교회의 청소년 교문들과 회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동생들은 청년 시절에 복음 선교사로 봉사를 하고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있다.

이 삼남매 내외가 함께 모인 곳에서는 세상의 어떤 이야기가 아닌 복음과 선교 사업이 이들 대화의 중심이다. 어떤 회원들을 어떻게 돌봐 주어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의논한다. 거기에는 지난 일요일에는 남동생이 감독으로 봉사하는 대명 와드 건물에서 상인 와드가 이사하여 신축 건물의 헌납식이 있었기에 더욱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꾸밀 수 있는 축복은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지도자의 권고에 따라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란단다.

오늘도 삼남매는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결혼을 하고 부름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살아갈길 기도한다.

2005년 서울 지역 합동

동계 청소년 대회



달력을 본다. 1월 11~13일 밑으로 쪽 살표, 그리고 파랗게 적힌 “서울 지역 7 이크 합동 청소년 대회, 2박 3일, 상천 호스텔, 문화의 밤 준비 연습 위주(화관 춤)”.

달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 한번에 최소 회의라는 대회 준비를 맡아온 서울 북 스

남 자매와 동대문 스테이크 권 형제는 옷을

간히 챙겨 입고 하루 먼저 대회장으로 향한다. “지

쳐선 안 된다. 이제 시작이다. 내일이면 7개 스테

이크의 2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곳으로 모인다!”

서울, 서울 남, 동, 동대문, 북, 영동, 강서 스테이크

의 청소년들을 태운 버스가 속속들이 도착하고, 드디어 개회식이 진행

된다. 감리자 고원용 장로의 힘찬 개회 선언과 연이은 연사들의 말씀

에 집중하는 14개 조로 출 선 청소년들, 그런데 표정이 다들 굳었다.

“아 ... 추워. 이 체육관 왜 이리 추운 거야. 9조에는 친구가 없는데 13조로 바꿔 주면 안되냐? 휴우 ...”

이 때 안전 책임자인 서울 동 스테이크 방 형제는 온풍기를 옮기느라

진땀을 뺀다. “단체 게임 시간에는 좀 덜 추울 거예요. 4시간 동안

하는 것인데 추우면 큰 일이지.”

정말 체육관은 곧 온기로 가득 차 오른다. 온풍기의 열기와 어느새

친구가 되어 뛰고 달리는 청소년들의 열의가 더해져서 말이다.

“배고프다. 줄 먼저 서는 조부터 밥 먹으로 간대. 동반자! 빨리 줄

서자. 근데 밥 먹고 뭐 해?”

“춤 연습이야. 청남들은 7층 테니스장에서 북춤 연습하고, 우리는

화관무 연습하러 6층 컨벤션홀로 간대.”

이 아이들에 섞여 동 스테이크 전통 공연 연습 총 책임자 황 형제도

저녁을 먹고 강습을 맡은 신미경 선생, 그리고 고재현 선생과 함께 다

시 이것 저것 의논한다. 그리고 250여 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어

야 할지 대충 짐작을 해 본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정신이 없는 듯하다.

“북 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아니 여섯 줄이에요. 그래야

135명이 다 서지. 하나 둘 하면 북채를 드세요. 아니

벌써 치면 안 되요. 셋하면 ...”

고 선생의 잔소리에도 “통, 둥, 탁” 여기 저기 마음대로 울리는 북 소리, 이야기 소리는 테니스장을 정신없이 울려 놓고, 15여 명의 안 전

원인과 고문들은 자신도 배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데 ... 화관 무 쪽 풍경은 어떨까.

“자 한삼 손에 끼고 조금만 더 연습하자. 팔 아프지? 조그만 참자. 힘내고, 자 일어나야지.”라며 지친 청녀를 달래는 맘 좋은 신 선생. 이

쪽도 120여 명의 피곤에 지친 청녀를 가르치기 힘든 건 마찬가지다.

다음 날. “세미나”, “숲 속 여행” “춤 연습”, “리허설”, “무도회”의

빽빽한 일정이 진행된다. 세미나를 통해 요셉 스미스와 예언자에 대해

배운 청소년들은 숲 해설가들의 인도를 받아 신기한 숲 속 이야기에

빠져든다. 숲 해설 자원 봉사자들을 모셔온 강서 스테이크 표 형제도

청소년 한 팀을 데리고 숲 해설에 나섰다.

“자. 여기 보이는 하얀 옷을 입은 나무 이름은 뭘까? 이 나무로 불

을 때면 ‘자작, 자작’ 소리가 나는데 ... 맞아 자작 나무야. 이 나무 껍

질이 신기하지? 이 껍질은 마치 종이 같아. 여기서 편지를 써 보내면

어떨까? 이건 뽕나무야. 뽕나무와 천년 묵은 거북이 이야기 알아요?

옛날, 옛날에 ...”

이어 다시 춤 연습은 시작되고, 이렇게 춤 연습에 추위와 싸우며 바

쁜 하루를 보낸 아이들은 허겁 지겁 식당으로 뛰어간다. 그리고 드디

어 리허설. 말끔히 차려 입은 청녀들이 먼저 줄을 선다.

그러자 조용해진다

줄을 타는 가야금 소리에

두 손을 감싼 한삼은 색동이 하얗고 길게 하늘을 날고

다소곳이 두 발이 앞 굴신, 뒷 굴신

이쁘게 절하고 일어서는 청녀를 향해 박수가 터진다.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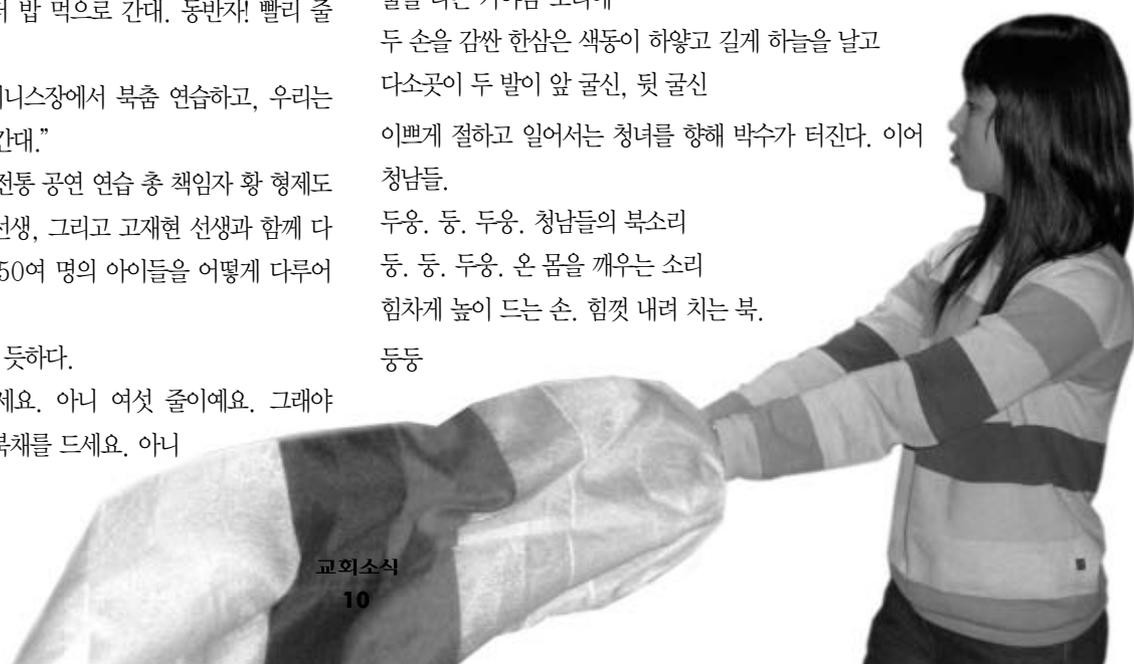
청남들.

두웅. 둥. 두웅. 청남들의 북소리

둥. 둥. 두웅. 온 몸을 깨우는 소리

힘차게 높이 드는 손. 힘껏 내려 치는 북.

둥둥





처치뉴스 2005년 2월 12일 자에 실린 합동 동계 청소년 대회 기사

관중들의 박수가 쏟아진다. 그리고 그것을 해낸 청소년들 자신들도 놀란다. 고된 연습으로 채워진 청소년 대회를 마무리하는 폐회식에서 동 스테이크 의정부 워드의 박 형제는 이렇게 간증한다.

“50주년 행사가 무엇인지, 문화의 밤 준비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배웠습니다. 학교에서처럼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그 동안 청소년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 참석해 보니 조원과 고문님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 같은 워드 소속 배 자매는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문화의 밤 행사에 동참하는 것을 그저 귀찮고 하기 싫다고 해서 날려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계 키가 작아 화관무 연습 때 선생님 동작을 보기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신앙때문에 온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했다.

대회가 끝나자 청소년들은 2박 3일 동안 정들었던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수다도 떨며 헤어지기 아쉬운 듯하다.

“동반자. 우리 또 언제 만나? 떨어져 자주 볼 수 있을까?”

“괜찮아. 한 달에 두세 번은 모여서 춤연습 같이 할 거잖아.”



50년사 준비 위원회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한국 교회 발전의 역사를 모아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지난 50년은 절대 빈곤에서 오늘을 만들었던 시기로, 어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였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시기에 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오늘을 만들었다. 그러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담은 기록은 한국의 말일성도 후세대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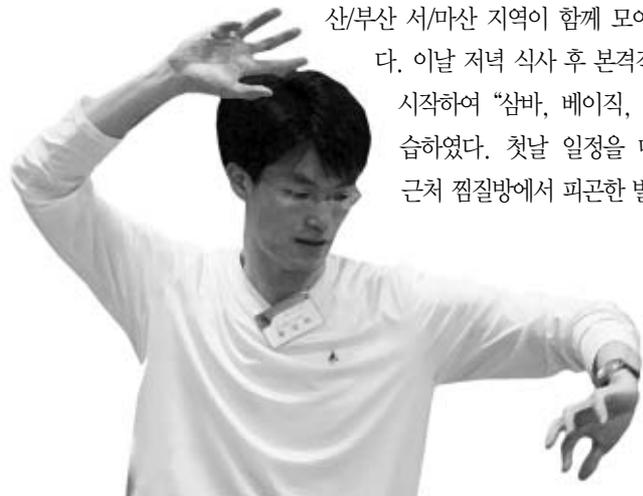
문화의 밤 준비 현장에서

독신 회원 댄스 캠프

지난 1월 14, 15일에 서울 남 스테이크와 수원 캠퍼스 체육관에서 서울, 경기, 대전, 청주, 부산, 마산 스테이크, 부산 서 지방부의 독신 회원들이 모여 문화의 밤 행사 일환으로 준비 되는 총 7분 스포츠 댄스 공연의 연습을 위한 댄스 캠프를 가졌다.

첫째날(14일)

오후 1시에 감리자 고원용 장로의 환영사로 캠프를 개회하여 강습 일정과 입장에서 퇴장까지의 전체적인 작품 설명을 들었다. 댄스 연습은 한 달에 2번씩 서울/경기 지역이 함께, 대전/청주 지역이 함께, 부산/부산 서/마산 지역이 함께 모여 연습할 것이다. 이날 저녁 식사 후 본격적인 춤 연습을 시작하여 “삼바, 베이직, 휘계” 등을 연습하였다. 첫날 일정을 마친 청년들은 근처 찜질방에서 피곤한 발을 풀었다.



현재 역사 편찬팀에서는 고원용 장로와 최석구 형제의 지도 아래 백명숙 자매(서울 동 스테이크, 도봉와드)가 각 스테이크의 약사를, 백길환 형제(강서 스테이크, 신월 와드)가 교회 본부에서 보내온 각종 역사 기록의 번역 및 정리를, 이민희 자매(안양 스테이크, 금천1 와드)가 각종 역사 기록 및 사진의 수집을, 김대연 부장(청주 스테이크, 천안와드)이 본문 집필을 맡아 일하고 있다. 김대연 형제는 “현재 준비 중인 한국 교회 50년사는 거시적인 ‘통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전기, 회고, 인터뷰, 일지, 역사 기록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회원 개인들이 남긴 세세한 기록들이 더해져 보다 완성도 높은 역사 기록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전했다.



둘째날(15일)

다음날, 경희대 수원 캠퍼스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실제 무대 감각을 익히며 연습을 이어 갔고, 첫날 배운 스텝으로 공연 음악에 맞춰 모의 공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지역 회장단의 고원용 장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이용환 장로, 그리고 서울 서 종교 교육원 원장인 조만구 형제, 길정권 스테이크장이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했다. 폐회식에서 고원용 장로는 “최고의 공연을 하십시오. 실전에서처럼 하십시오. 연습 약속을 지키십시오.”라고 권고 하며 “공연은 성공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영을 고양시켰다.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및 요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된 문화의 밤 댄스 공연의 모든 구상은 외부 초청 강사인 박관식 선생이 했으며 그 내용은 교회의 역사를 다룬 것이다. 그는 구상을 위해 교회 서적을 탐구했으며 이날 연습 때 박 선생은 이미 반 이상 말일성도가 된 듯했다. 14일에 서울 남 스테이크에서, 15일에 경희대 수원 캠퍼스 체육관에서 가진 이번 캠프는 영하 10도 안팎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칠 줄 모르는 청년들의 발놀림으로 연습장을 달구었다.

아내이고 엄마이기에

황은미 자매는 4자녀의 어머니입니다. 10여 년 전 고향 부산에서 침례 받은 그녀는 이곳 서산에 남편을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갑작스런 정리 해고로 남편이 직장을 잃자, 황 자매는 힘들면서도 내색 않는 남편을 돕기 위해 정수기 세일즈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직하게 해서 어떻게 물건을 파느냐, 술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하느냐고 했지만, 황 자매는 복음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쪽같다라는 말을 들으며 4개월 전 웅진코웨이 서산 지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지만 판매량 보다는 자신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쌓은 신임 덕분에 얻은 승진이라 황 자매는 믿습다. 하루 종일 판매량과 직장 동료, 고객들과 씨름하다 보면 온 몸이 쓰러질 듯 지치지만 그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장을 보노라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생



각하며 행복하기만 합니다. 고 3인 큰 딸부터 초등학교 5학년 막내아이까지 신경써야 할 것이 많지만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까 스스로 학업에 노력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아직 개종하지 않았지만 자신보다 더 말일성도 같은 남편과 함께 둘러 앉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황 자매는 다시 내일을 재충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이 되면 네 자녀와 함께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과 서산 지부 초등회 회장으로서 교회에 갑니다. 그곳에는 이제 막 힘을 내서 일을 시작한 남편과 너무나 착한 아이들을 위해 다시 기도하고 고비 고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십일조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올해는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황 자매, 이런 황 자매의 강인함은 아마도 어머니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주요 일간지들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관련 보도

2005년 1월 18일, 공보위원회가 새해를 맞아 국내 주요 일간지 종교 담당 기자 10여 명과 신년 교례회를 서울시 소재 프레스 센터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원용 장로는 올해가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이자 예언자 요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라고 강조하고, 이를 축하하는 차원에서 한국 성도들이 어떤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했다. 평소 우리 교회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기자들은 갖가지 궁금증들을 묻고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 언론인들의 시각에도 2005년이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의미 깊은 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오찬 모임이 은 다음 주 거의 모든 주요 일간지 종교면에는 우리 교회의 행사들을 매우 우호적이고 자세하게 소개한 기사가 실렸다. 한국공보위원회는 매년 3~4회 정도 정기적으로 주요 일간지 기자들과 모임을 갖고 교회의 동향과 복음 원리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 교회 관련 기사를 소개한 신문들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2005년 1월 22일 토요일 문화면(지면A19), 문화일보 제 4046호-2005년 1월 26일 수요일 문화면, 서울신문-2005년 1월 20일 목요일 학술,종교면, 세계일보 제5169호 1월 27일 목요일 종교면(지면31), 조선일보 제26152호 - 2005년 1월 21일 금요일 종교면(지면A23), 한겨레 5273호 7판 2005년 1월 20일 목요일 문화면(지면15), 한국경제 제 13041호 2005년 1월 20일 목요일 문화,TV면(지면A36), 한국일보 2005년 1월 21일 금요일 문화,외국어면(지면A26)

“가서 행하겠나이다!”

성찬식 참석 인원 2003년 45명에서 2004년 85명으로 약 2배 증가



인천 스테이크 연수 지부의 이야기다.

이 지부는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개종 침례자 23명, 재활동 17명이라는 성과를 얻

었다. 어떤 달은 한 주도 빠짐없이 침례식이 있는 등 2004년 한해 연수 지부의 선교 사업은 왕성했고 지금도 그렇다. 선교 사업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지부장단은 “...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노니...”라는 니파이일서 3장 7절의 구절에 대해 확고한 간증을 얻었다고 전했다. 현재 연수 지부의 보조 조직 활동 회원의 구성은 초등학교 어린이가 30명, 청남·청녀 19명, 상호부조회 25명, 신권 형제 6명이다. 즉, 도움이 필요한 회원은 많고 도움을 줄 신권 형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 사업의 불을 지피게 된 요인으로 지부장인 박인수 형제는 다음 세 가지를 든다.

“첫째는 신권 지도자의 선교 사업 지도력 발휘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신권 형제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명으로 조직된 저희 지부장단은 상호 신뢰와 신앙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일에 매진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2004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성찬식을 비롯한 모든 모임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고 영어 회화반 코디네이터로 직접 참석하여 가능성 있는 구도자를 찾아 선교사와 함께 우정 증진을 했습니다. 또한 선교 책임자와 갖는 선교 협의회 모임, 영어 회화반 강화를 위한 준비 모임, 상호부조회 선교사 식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들이 의욕을 갖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둘째는 회원 선교 사업입니다.”

저희 지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선교사들을 식사에 초대하는데,

이 때 구도자를 필히 동반하도록 선교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또한 많은 회원들이 이웃들을 교회 활동 모임에 적극 초대했습니다. 이런 방

법으로 회원이 구도자와 늘 접촉하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5명의 회원이 13명의 구도자를 소개하여 10명을 침례 주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영어회화반 활성화입니다”

연수 지역은 인천에서도 교육열이 강하고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어 회화반으로 4개반(어린이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구청과 협의하여 구민 30만 명이 보는 구청 신문을 이용했습니다. 그러자 60명 정도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수는 일년 내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교 사업의 열쇠는 회원이었습니다. 각 반별 회원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그들이 수강 신청서 접수, 출석 확인, 교회 모임 광고, 복음 관심 여부 파악, 선교사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했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반원들은 소속감과 수업의 질적 만족감을 느끼며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원들이 성취감을 느끼도록 일년을 4학기로 나누어 한 학기 마감시 반별로 영어 발표회 개최, 교회 연사 초청, 교회 음악 및 비디오 시청 등의 특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출석률이 좋은 반원들은 진급시키고 결석이 많은 반원들은 제적하여, 새로운 대기자를 등록했습니다. 그러자 2004년도에 영어 회화반에서 11명의 침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수 지부에서는 2004년 한해 초등학교 6명, 청소년 11명, 성인 6명의 새로운 회원이 생겼다. 이들 가운데에서 18명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은 연락, 가정 방문, 모임 초대의 방법으로 재활동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사랑의 약속”

이 작품의 작가이자 감독인 김영순 자매는 말한다.

“저는 이루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한번은 친한 친구가 세상과 복음 두 곳에 다리를 다 놓을 수 없으니 하나를 선택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 생활을 정리하고 신앙을 택했습니다.”

극단을 한다고 3년을 떠났던 교회를 다시 찾으면서 그녀는 세상 무엇보다 사랑했던 연극을 접었다. 그 후 감춰지지 않는 타고난 재능을 교회에서 발휘했다.

“대전 선교부에서 귀환한 후, 저는 동대문 스테이크에서 해마다 연극 대본을 쓰고 연출을 했어요. 한번은 교회 150주년 기념 행사로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는 연극,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작품을 쓰고 연출하게 되었죠.”

이 연극을 위해 늦은 밤까지 혼자 자료를 조사하고 신앙의 발자취를 연구하며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로운 꿈을 발견한다. “연극을 통해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유타 주로 유학을 간 그녀는 하루 네 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며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고 일년 후에 아이다호 브리감 영 대학교 연극 연출학과에 입학했다. 그녀는 계속 노력하여 유타주 브리감 영 대학교로 편입했고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대며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했다. 미국 학생들에 비해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했지만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졸업생 작품 시상식에서 연출상을 받았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고 아무런 주저없이 뉴욕행을 결심했다.

“뉴욕에는 미국 연극 문화의 중심지인 브로드웨이가 있기 때문이입니다. 그곳에서 연극과 뮤지컬을 보러 다니며 나 역시 언젠가 이곳에서 공연을 해보리라 꿈 꾸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능해 보이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전진뿐이었다.

식당에서 하루 열두 시간 일해 힘들게 학비를 모았고, 그 돈으로 영국 유학을 가 그 곳에서 셰익스피어에 심취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연극 영화의 명문 대학교인 “뉴욕 대학교 공연학 대학원”에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이 때 한 학기에 천 오백 만원이라는 엄청난 수업료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도저히 그 돈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기 저기 장학 재단을 알아봐 주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해 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막막했어요.”

합격할 것만으로도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니 그것으로 만족하려 했다. 마침 수업료가 훨씬 싼 학교에서도 합격 연락이 왔기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에도 그녀는 학비가 싼 학교로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 때 주님의 손이 펼쳐졌다.

“어느 날 저와 가족처럼 지내는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제게 전화 하셔서 첫 번째 수업료를 무이자로 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들이 여유가 있어 제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내주셨던 거였죠.” 김 자매는 고맙다고 몇 번을 되내었지만 그 부부는 겸손히 이렇게 말했다. “영순아, 우리에게 고마울 것 없어. 하나님께서 네 기도의 응답을 우리를 통해 들어주신 것뿐이야.”

그 뒤로 그녀는 계속 달렸고 전진했다.

진정한 열의를 가지고 임했던 대학원 공부, 졸업 후 인턴십으로 참여했던 구모라 언덕 패전트 연출, 맨하탄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찾아 떠돌며 쓴 대본,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설명하며 여기 저기서 모았던 제작비, 그렇게 3개월 만에 모은 2만 달러, 적당한 장소를 위해 방문했던 30여 극장. 그리고 마침내 미국 브로드웨이 맨하탄 45번가를 당당히 딛고 연극 “사랑의 약속”은 막을 올린다. 누가 미국 한 복판에서 한국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연극을 보리라 예상이나 했던가! 누가 파란 눈의 배우가 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눈물을 흘리리라 생각이나 했던가! 어떤 이는 전원 미국인 배우로 어떻게 한 가족이 겪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냐고 했지만 그녀는 해내었고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이제 연장 순회공연에 나선 김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곧 어려운 일이 제 앞에 놓여지겠지만 저의 소망이 의로운 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두렵지 않습니다.”(엘마서 37:36 참조)



김영순 자매를 시작으로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 5명 모두가 개종했으며 현재 김 자매는 매주 맨하탄 성전에서 자원 봉사하며 뉴욕 뉴욕 스테이크 유니온 스퀘어 제1와드에 나가고 있다.

사진: 중앙의 김영순 자매와 연극에 출연한 미국인 배우들

지역 단 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 강서 스테이크
2004년 11월 20일 발산 와드 헌납식-이용환 장로 감리
2004년 12월 25일 2004 스테이크 송년 음악회-고원용 장로 감리 (정춘영 기자)
- 광주 스테이크
2005년 1월 6~8일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조용현 스테이크장 감리
2005년 1월 29일 스테이크 세미나 졸업 및 수료식-조용현 스테이크장 감리(박유미 기자)
- 대전 스테이크
2005년 1월 11일~13일 2005년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 설양환 스테이크장 감리 (오순임 기자)
- 마산 스테이크
2004년 12월 25일 스테이크 송년 음악회-김충석 스테이크장 감리
2005년 1월 7일~8일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김웅조 스테이크장단 제1보좌 감리
2005년 1월 9일 한인상 형제 초청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김충석 스테이크장 감리
2005년 1월 15일 스테이크 경전 퀴즈 대회-김웅조 스테이크장단 제1보좌 감리
2005년 1월 30일 스테이크 선교사 지도서 훈련모임-고원용 장로 감리(권순길 기자)
- 서울 동 스테이크
2004년 12월 18일 스테이크 “가곡의 밤” 모임-이우영 스테이크장 감리
2004년 12월 25일 스테이크 합동 침례식-이우영 스테이크장 감리(이지은 기자)
- 수원 스테이크
2005년 1월 6~8일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 충남 태안읍 어은돌 해수욕장 솔모루 펜션-구승훈 스테이크장 감리 (최미경 기자)
- 전주 스테이크
2004년 12월 4일~12월 25일 스테이크 중창단 “Zion Voice Ensambl”의 정기발표회
2005년 1월 23일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김용록 스테이크장단 제1보좌 감리 (오경권 기자)
- 제주 지방부
2005년 1월 21일과 22일 지방부 청소년 대회-이명훈 지방부장 감리
2005년 2월 1일 2005 제주 기혼자 대회-이명훈 지방부장 감리(김정은 기자)
- 청주 스테이크
2005년 1월 20일부터 22일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
2005년 1월 29일 스테이크 세미나 졸업식 및 미래 교육 세미나 - 정태걸 스테이크장 감리(황선아 기자)

새로 헌납된 교회 건물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주소: 대구 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626번지

준공일: 2005년 1월 11일 헌납일: 2005년 1월 29일

건축 면적: 250.52㎡ 연면적: 513.28㎡

대지 면적: 1,333㎡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원주 지부장: 박수근 (전임자: 장현문)

마산 스테이크

밀양 지부장: 정영신 (전임자: 한기현)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감독: 조희철 (전임자: 허용환)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감독: 이성열 (전임자: 최성돈)

인천 스테이크

계산 와드 감독: 홍기빈 (전임자: 유형선)

전주 스테이크

정읍 와드 감독: 이현주 (전임자: 황인상)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3명



김이름

전주 스테이크
이리 와드
유타 템플 스퀘어
선교부



양지연

부산 서 지방부
김해 지부
유타 템플 스퀘어
선교부



이정환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
뉴욕 남 선교부